大學 신입생맞이의 意味와 哲學

李 洙 勳
(慶南大 社會學科)

1. '신입생맞이' 행사의 時代的 요청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끊임없는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우리 자신들이 변화하기도 하고, 때로는 세계를 변화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에는 주위 환경의 변화와 같은 외적인 것과 우리 내면의 변화가 있다. 그리고 변화는 그 성격상 連續性과 斷折性을 동시에 갖는다. 연속성은 양적인 측면에서 주로 살펴볼 수 있으며, 단절성에는 한 시기나 순간의 급격한 변화라는 질적인 면이 내포되어 있다. 아울러 연속적인 변화는 인간의 통제 아래 일어나는 것이지만, 단절적인 변화는 흔히 그같은 통제를 벗어나 발생한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러한 연속적 변화와 단절적 변화의 모습은 흔히 찾아볼 수 있다.

대학에 들어간다는 일은 개인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이다. 이는 고등학교까지의 受動的이고 他律的인 교육에서 能動的이고 自律的인 교육으로의 진입이며, 보편적 교양 수준에서 선택적이고 전문적인 영역으로의 전환이기도 한 것이다. 대학 입학은 이전의 교육과정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교육과정으로의 진입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대학 입학이라는 변화에는 연속성과 단절성이 동시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후자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대학생이 되면 사고와 행동 면에서 고등학생 때 가졌던 사고와 행위와는 질적인 차이가 있어야 하고, 학습하는 자세에서도 근본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안된다.

오늘날 세계의 변화는 우리가 좇아가기 어려울 정도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요즘 '국제화'라는 말로 이 변화에 적응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형편이지만 작금의 변화는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그것이 주는 충격과 파장도 심대하다. 분명히 轉換의 시대, 激變의 시대라고 할 만하다. 지난 몇 년간 이루어진 국제 정치적·경제적 현실의 변화는 과거 수십년 간의 변화보다 오히려 급격하였다.

이러한 격변의 시기에 우리 대학의 모습과 대학이 추구해야 할 목표는 어떠한 理念型을 가져야 할 것인가? 현실에 대한 적응은 必要條件이긴 하지만 充分條件은 아니다. 무언가 발전을 위해서는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금 그리고 여기'에 대한 냉철한 省察과 批判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학이 자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추구

하는 이상을 나름대로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교육환경의 개선이나 敎育財源의 확보 등 산적한 외적인 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함은 재론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변화는 대학 자체의 전환, 대학을 꾸리고 가는 주요 구성원들의 의식의 전환에서부터 출발되어야 한다.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이것이 더 전략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새롭게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대학생이 되는 출발점이요, 동시에 '통과의례'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치렀느냐라는 문제는 장기적인 영향력을 지닐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입학시기를 전후해서 대부분의 대학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혹은 '신입생을 위한 대학생활 안내'라는 행사를 갖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면서도 매우 중대한 의미를 띠는 행사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일부 대학에서는 이 행사가 매우 진지하고 계획성있게 진행되는 반면, 대다수 대학에서는 지극히 형식적인 선에서 하나의 要式行爲로 치러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다.

어떠한 조직에서나 새로운 구성원들을 맞이할 때는 그들에게 그 조직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정확하고 요령있게 제공하고, 그들의 역할과 임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어야 한다. 대학도 그러한 사회조직의 하나다. 따라서 변화된 환경과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선택을 앞둔 신입생들에게 올바른 대학생활의 방향을 제시하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은 당연하며 필수적이다. 오리엔테이션, 즉 신입생맞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러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면 이는 신입생들의 대학생활 전반에 걸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초기교육이 인생의 첫 단계 교육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지듯이 대학의 '신입생맞이' 행사도 신입생들에게 대학생활의 첫 단계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 글은 이러한 맥락에서 대학 '신입생맞이'의 의미와 방향성을 우리 사회에서 대학생이 갖는 위상과 대학의 실상, 대학생됨의 의미, 그리고 대학생이 갖추어야 할 덕목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변모하는 大學生의 사회적 위상과 大學의 현실

우선 대학생은 어떤 사람들이고, 대학의 현실은 어떠한가에 대해 살펴보자. '大學生'이란 말 그대로 대학에서 학문에 대한 탐구와 연구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고 또 수행해야 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들은 利害關係에서 벗어나 보다 순수하고 거시적인 안목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일종의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때문에 이들은 사회에서 명시적으로나 암묵적으로 여러 가지 特權을 누리고 있다. 이것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 망정 보편적이다.

동시에 이들은 가족과 사회로부터 기대와 개인적·역사적 임무를 요구받는다. 특권이 있는 만큼 의무가 따르는 것이다. 이같은 특권과 의무는 항상 병렬적이지는 않으며, 때로는 양자가 갈등하고 충돌하기도 한다. 여기에서 대학생의 존재 자체에 모순이 잉태되기도 하는 것이다. 비록 짧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大學史가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국에서 대학생이 된다는 것은 선택받은 소수, 즉 엘리트가 되는 것이었다. 보통사람이 누릴 수 없는 특권을 향유하기도 하였다. 동시에 한국의 대학생들은 그같은 특권에 어긋나지 않는 열정과 의욕으로 지난 시대 우리나라의 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해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특권을 가진 집단으로서의 대학생의 위상은 이제 점점 약화되어가고 있다. 이는 중등교육에 이은 고등교육의 大衆化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45년 해방 당시에 남한과 북한을 합친 대학생(전문학교 이상)의 수는 총 7,800여 명이었다. 그후 대학생은 급격히 증가하여 1990년대에는 4년제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수가 100만 명 선에 육박하게 되었다. 이는 1945년에 비해 절대치만으로 무려 128배 이상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현재 전국의 4년제 대학의 숫자만도 150개를 상회한다.

이러한 대학교육의 大衆化, 대학생의 一般化가 대학생의 위상에 어떠한 변화를 주었으며, 우리 사회 현실과는 어떠한 갈등을 야기하였는가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우리 사회에서 대학생은 더 이상 엘리트가 아니다. 대학생은 선택 받은 소수도 아니며, 대학은 어지간한 능력만 갖추면 누구나 거쳐야 할 교육기관으로 변모하였다. 선택받은 소수가 되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교육이나 개인적 자질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버린 것이다. 대학을 졸업해도 엘리트는 고사하고 변변한 직장 하나 구하기가 대학에 들어가는 것 이상으로 어렵게 되어 버렸다. 고학력 실업의 증가, 흔히 교육 인플레이션이라고 진단되고 있는 고학력자 취업난은 이제 여러 병리현상을 유발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리쿠르트』지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교 1989년 2월 졸업자의 전체 취업률은 59.9%이고, 이중 진학, 유학, 군입대를 제외한 순수취업률은 45.7%에 지나지 않아 졸업생 절반 이상이 졸업과 동시에 실업상태에 놓이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

상아탑이 제공하고 또 제공해야 하는 높은 기회는 그러한 기회를 수용할 수 없는 사회경제적 현실의 포괄적인 벽에 부닥치면서 산산이 깨어지고 만다. 그 결과 '대학생'이라는 일종의 '理想'과 '취업난'이라는 엄연한 '현실' 사이에 메울 수 없는 틈이 벌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 간극은 때로 대학생들에게 '아이덴티티'의 문제를 야기하며, 대학교육 그 자체에 심각한 위기를 안겨 주기에 이르렀다.

이같은 위기는 한국의 열악하기 짝이 없는 대학의 교육환경에 의해 그 심도가 확대된다. 누누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대학교육의 일선에 서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우리 대학의 현실이 어떤가를 잘 알고 있을 터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대학교육의 대중화, 즉 대학의 무분별한 팽창이 상당 정도 대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데 기여하였다고 생각한다. 대학교육열을 수용하기 위해 정책당국과 대학이 공조하여 대학교육의 機會 擴大에만 치중한 결과, 급격한 양적 팽창에 부응하는 질적 제고 노력은 극도로 저조하였던 것이다.

양과 질이 따로 가는 대표적 사례가 한국의 대학교육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1989년 4월에 내놓은 『한국고등교육지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교육열을 나타내는 고등교육 선호도는 세계 제1위다. 대학진학률과 취학률의 경우 세계 1,2위를 나타내고 있고 인구 1만명당 학생수 또한 미국 다음으로 2위를 유지하는 등 양적인 측면에서는 분명 세계 정상권이다. 그러나 교육의 질을 나타내는 시설, 재정, 연구, 복지 등의 指標는 우리나라 대학교육 환경이 이같은 양적 성장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열악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다. 교수 1인당 학생수나 강의당 학생수, 그리고 학생 1인당 도서관 藏書數 등으로 꼽을 수 있는 敎育與件은 과거에 비해 개선된 점이 없다. 국제경쟁력이 있는 우수한 고급인력을 국가와 사회에 공급해야 하는 소임을 한국의 대학이 제대로 담당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현재로서는 공허하기만 하다.

필자가 대학생의 위상과 대학교육의 부정적 측면들을 단편적으로 얘기한 것은 대학생이 갖는 사회적 의미와 대학교육을 폄하하고자 하는 데 있지 않다. 현재 이들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 노력이 진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필자는 잘 알고 있다. 필자의 의도는 잔뜩 기대를 갖고 대학의 문을 들어서는 신입생들에게 자신들과 대학에 대해 불필요할 정도의 장미빛 그림을 제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데 있다. 기대에 대한 좌절에서 오는 혼란과 갈등 등 대학생활 도중에 겪게 될 반대급부보다는 변모하는 대학생의 위상과 우리 대학의 실상을 나름대로 정확히 알리고,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理解에 바탕을 두고서 현실개선노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계기로 삼자는 것이다.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다. 그저 當爲로만 치부할 수 있고, 또 쉽게 간과하기 쉬운 대학인의 자세와 임무에 대한 당부도 빼놓아선 안 될 중요한 사항이다. 그렇다면 대학생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들 신입생들에게 요구해야 할 올바른 대학인의 자세란 어떤 것이어야 하겠는가?

3. 대학생 됨의 의미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인간은 그 스스로 결정하는 일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런 기회를 실제로 가짐으로써 비로소 결정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사회적 동물이다. 대학이라는 공동체 사회에 들어가 대학생이 된다는 것은 나 자신이 스스로의 결정을 통해 삶의 방향을 잡고, 스스로의 결정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으로 들어가게 됨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학습은 교수가 주입시키는 방법에 의해서가 아닌 '提示'의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그 전까지의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수업방식에서 탈피하여 자유로운 토론과 독서를 통해 자신의 분석적 사고들 속에서 가치관과 세계관을 확립해 가는 본격적인 과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은 단순히 보다 전문적이고 높은 수준의 지식만을 습득하는 장이 아니라 도덕적·이성적 省察을 통해 자신을 수양하는 場으로서의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에서 교육받은 인간을 아레떼(arete)와 테크네(techne)를 획득한 사람으로 간주하였다. 여기에서 아레떼라고 함은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공동의 교육과정을 통하여 지적이며 수준높은 학문으로 얻어지는 개인적인 탁월성(excellence)과 秀越性을 말하는 것이고, 테크네는 노동의 가치를 창출시키는 기술을 의미하는 것이다. 현대에 와서도 이러한 그리스적 의미는 축소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대학생이 된다는 것은 精神과 技術 중 어느 한 부분에 치우치지 않고 兩者 모두에 대한 진지한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을 떠맡게 되는 것이다.

특히 우리 사회와 같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는 사회일수록 위와 같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며, 따라서 대학생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성세대가 발전이라는 명목 아래 키워 놓은 物神主義나 발전을 위한 변화조차도 두려워하는 보수적 관념체계로부터 대학생들은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립셋(S.M. Lipset)은 대학생을 '예비 지성인'이라고 하면서 참다운 지성인이란 항상 날카로운 현실의식과 올바른 방향감각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지적 성장을 끊임없이 꾀하는 동시에 자주성과 비판정신에서 우러나오는 지적 노동을 통해서 더욱 나은 사회를 이룩하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사회발전과 인간의식의 변화를 주도하는 지식인을 길러내는 임무는 역사적으로 대학이 담당해 왔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대학이 인류사회를 진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으며, 중세기에 교수와 학생의 조합 형태로 탄생한 대학은 국가와 사회의 지원을 받으면서 그 본질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오늘날까지 발전해 올 수 있었던 것이다.

4. 大學生의 자세

신입생들은 대학 입학후 이전까지와는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된다. 그것은 학교 안에서의 학문적 생활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 즉 지역사회에서의 활동 속에서도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대학생의 절대적 수가 매우 적었던 과거의 경우는 더 말할 나위도 없겠지만, 고등교육의 확대로 전반적인 학력의 수준이 높아져 있는 현 상황에서도 장차 한 사회를 책임지게 될 젊은 세대들에게 거는 기대는 특별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자신의 경험과 주위의 기대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재정립해 나아가야 할 대학생 시기를 맞는 신입생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자세의 구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덕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自律的인 자세다. 여기에서 말하는 자율적이라는 의미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이전 교육과정까지의 타율적인 학교생활과 교육방식에 대한 상반된 측면의 의미도 띠지만, 보다 폭넓고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외부적인 압력이나 유혹에 굴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이성적인 사려에 의거하여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의미도 포함되는 것이다. '유아독존'식의 我執을 지양하는 훈련을 쌓는 한편, 자신의 행동과 사고에 대한 책임의식 없이 유행과 시류에 편승하여 대학생이 가져야 할 자존과 성숙한 사고를 저버리는 실책을 범하지 않

도록 하는 훈련도 쌓아야 한다. 이같은 훈련을 자발적으로 수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을 他律의 덫으로 몰 뿐 아니라 향차 설득력을 갖고 지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不偏不黨性이다. 이는 대학생이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공표하고 경우에 따라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그것이 어디까지나 도덕성을 바탕으로 한 정의의 명분 아래 민족과 국가의 공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어야지, 사회 속의 특정 정파나 진영 혹은 세력의 편에서서 그것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생들의 비판적 언행은 바로 이 점 때문에 현실적으로 일반 대중에게 환영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일부에게는 환영받지 못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대학생 자신들의 이해와 관계없는 사항들이기에 그들의 의견은 사회의 일반 대중들에게 편견없는 시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반면, 기존의 이익집단들에게는 하나의 걸림돌로 느껴져 환영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셋째, 純粹性이다. 이는 두번째 얘기했던 불편부당성과 도덕적인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사회문제에 대한 대학생의 비판적 자세가 보상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의 해결을 촉구할 뿐이어야지, 이러한 비판적 활동 자체에 대한 反對給付를 요구하거나 또 제기된 문제의 해결을 통해 대학생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예컨대 分配의 균형을 주장한다 할 때, 이것이 대학생들의 이익증대를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정권의 비민주성을 규탄한다고 할 때, 이것이 대학생 스스로 정권을 담당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루어질 수는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직접적인 利害關係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사태를 볼 때 대국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냉정하고도 긴 안목으로 파악할 수 있거니와 대학생은 사회문제에 대해 쟁점을 제기할 때 바로 이러한 순수성을 견지해야 한다.

넷째, 創造性이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창조성은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가능성으로 표현될 수도 있을 것이고, 독창성이나 개성과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전의 것, 옛것에 대한 이해와 비판이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그것들을 그대로 답습하는 학문이라면 발전에 대한 기대는 어려워질 것이다. 또한 현대는 國際化·世界化의 시대이다. 교통수단과 정보, 통신수단의 혁명적 발전으로 세계는 이미 하나의 울타리 안에 있으며, 학문적 차원에서도 외국 정보의 확보 노력이나 적극적인 교류를 시도하지 않는다면 이는 곧 학문의 침체로 연결될 것이다. 더 나아가 항상 외국의 학문을 배우고 익히는 데 머무르고 우리 자신의 독창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항상 그들을 쫓아가는 데 모든 정력을 소진하게 될 것이다.

자율성, 불편부당성, 순수성, 창조성—이는 곧 대학사회가 추구해 가는 지성의 본질이기도 하다. 지성이 갖추어야 할 이러한 요건을 소홀히 한다면 온전한 학문적 탐구 자체가 불가능하다. 진리의 탐구와 이의 전수를 근본 목적으로 삼는 대학교육이 대학생들로 하여금 이같은 요건들을 갖추게 함으로써 사회에 대한 비판과 선도에 요구되는 일반인으로부터의 도덕적 신뢰도를 얻을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그 동안 대학사회의 비판적인 주장과 활동이 일반 국민의 보편적 지지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대학인의 사회진단과 방향제시가 언제나 반드시 옳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그 비판과 주장의 내용에 앞서 그 비판하는 자세가 일반 국민으로부터 도덕적 인준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생이 갖추어야 할 이러한 덕목들은 스스로가 깨달을 수도 있지만, 대학생활을 시작하는 신입생들의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같이 되새겨 볼 만하다.

5. 보다 나은 '신입생맞이'를 위하여

지금까지 신입생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의 필요성과 그 의미를 새겨보기 위해 한국대학의 현실과 대학생 됨의 의미, 그리고 대학생이 갖추어야 할 덕목들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의 방향성을 原論的 차원에서 살펴보면서 이 글을 맺고자 한다.

첫째, 무엇보다도 강조되어야 할 점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要式的·高踏的인 인식의 폐기이다. 이는 학교 당국, 신입생, 학부모 삼자 모두에게 요구되는 사항이다. 이제까지 학교 당국은 학칙, 학교편제, 교과과정 등을 담은 '대학안내' 또는 '대학요람'을 만들어 대학의 개요와 제도를 알리고, 인적 물적 시설과 학사운영 방침 등을 인지시키는 데 그쳤다. 이것은 자칫 대학생을 획일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타율적 교육에 익숙한 신입생들은 그러한 홍보물에 진진한 관심을 두지 않거나 이들을 기계적으로 해석할 소지가 많다. 이것은 바람직한 '신입생맞이'가 아니다. 보다 설명적인 오리엔테이션이 일차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둘째, 각 대학마다 특징있는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천편일률적인 행사는 지양해야 하며, 그렇다면 굳이 시간과 예산을 사용해 가면서 따로 오리엔테이션을 할 이유도 없다고 본다. 물론 우리나라 대학들은 매우 다원적이지 못하고 대단히 획일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차별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국립대와 사립대의 차이, 서울 소재 대학과 지방 대학의 특성, 여자 대학이 갖는 특수성, 종교와 연관이 있는 학교, 스포츠가 강한 대학 등등 각 대학이 지니고 있는 특성과 장점(혹은 취약점)을 부각시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셋째, 단과대학 단위의 오리엔테이션의 활성화를 고려해 보는 것도 의미있을 것이다. 내실을 꾀하고 다원성을 살리기 위해서이다. 이제까지는 전체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오리엔테이션의 경우, 학교측에서 직원이나 보직 교수를 파견하여 교육을 실시해 왔고, 그 하부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주로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담당해 왔다. 단과대학별 오리엔테이션에 학교측의 관심과 지원이 뒤따를 경우, 신입생들에게는 두 가지 정도의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자신이 소속하게 되는 학과의 인접 학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소개를 받음으로써 관심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고, 다른 하나는 단과대학별로 그에 따른 학사운영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습득이 가능하게 될 수 있다는 장점이다. 특히 전자의 경우는 점차 학제간 벽이 허물어져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몇몇 대학에서는 유관학과들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학부제의 채택이 실행되거나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는 형편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교수와 학부모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보직을 맡은 교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수들은 학생들의 오리엔테이션 과정에 무관심한 것이 현실이다. 물론 이전의 중등과정에서의 담임선생과 같은 역할을 교수들이 담당할 수도, 담당해서도 안 된다. 올바른 참여의 모습은 앞에서 밝힌 바 있듯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신입생들에게 여러 가지 선택가능성을 제시하며, 대학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正體性의 위기'에 대한 조언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학부모들도 대학에 합격만 하면 자녀교육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좁은 틀을 벗어나야 한다. 중·고등학교 교육시 보여준 열성의 절반만 기울여 준다면 신입생이나 오리엔테이션을 담당하는 대학측에 큰 지지의 표시가 될 것이다. 이에 더해 학부모들에게는 도대체 내 자식이 다닐 대학에서 내 자식을 위한 첫 행사를 어떤 형식과 내용을 갖고 실시하는지 감시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 ☞